



도록 준비를 해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남이 쓴 교과서의 내용을 샅샅이 이해하기도 어려웠거니와, 개중에는 저자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해인가는 <교육사> 강의를 하면서 중세 십자군 전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더니, 한 학생이 '십자군 원정이 몇 차례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읽은 많은 교육사 교과서들 중 그 어느 책에도 십자군 원정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둔 책은 없었고 내 스스로도 그러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육사 강의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편에서 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었고, 그들의 궁금증은 올바르게 평가되고 격려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학생의 궁금증을 칭찬하기보다는 교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짓궂은 질문거리를 들고 와서 장난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때 내게는 '그것 참 좋은 질문이지만, 내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정 사실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교수로서의 결격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학생의 호기심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았다. 부끄러운 기억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실패의 기억들을 뒤돌아볼 때, 나는 강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듯하다. 즉,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강의라는 생각, 그래서 교수는 뭐든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내 강의를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것이 되게 했다.

강의는 판단을 가르치는 것이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떠다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해당 분야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다 알기는 어려우며, 그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수가 미처 모르고 있는 정보를 우연히 접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다. 밭을 가는 농부의 쟁기 끝에 걸려 나온 돌도끼는 농부의 눈에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돌맹이일 뿐이지만, 고고학자의 눈에는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고고학자는 농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의는 정보 더미를 전달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는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 정보는 말로써 직접 전해줄 수 있지만, 판단능력은 말로써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함으로써 서서히 길러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판단하는 일을 시범해 보이고, 학생들의 판단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잘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판단이다. 판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만남을 통한 양방향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내가 교과서 전달식 강의에서 다소간 벗어나게 된 것은 <교육학 교육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부터였다. 이 과목은 교육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을 때 고등학생들에게 교육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이지만,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책이 한 권도 나와 있지 않았고, 거기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 교과목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해 온 강의방식 - 즉, 기성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방식 - 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과목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개론 교과서들을 뒤져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했다. 처음에 학생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했다. 교수가 뭔가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물론 내가 보기에 미흡



한 구석도 많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꼭 몇 명씩 눈에 띄던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없어졌다는 점이었다. 학기말이 되어 강의평가 결과를 보니,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어떤 강의평가보다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수업이 교수의 일방적인 내용전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위대한 선배 교육자들이 그토록 강조해 온 '자발성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야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교과목에서 가능한 한 내가 강의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표준화된 정답을 전달하는 데는 비효과적일 수가 있다.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켜 보면 주제에 대해서 요령 있게 잘 정리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유능한 발표자를 만나면, 학급 전체가 해당 주제에 대해 충실하게 공부하게 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표자를 만날 경우에는 학급 전체가 해당 주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그 부족한 부분을 교수가 보충하고 교정해주지만, 처음부터 교수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경우만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과 내용의 체계적 전달'에 집착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기 보다는 내가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강의방식을 바꾸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는 또 다른 깨달음이 필요했다. 그것은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곧 좋은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흔히 가르치는 일은 예술(art)이라고 말한다. 이 때 '예술'이라 함은 반복이나 재생이 불가능한 일회적인 것임을 뜻하는 말로서, 가르치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반복과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업은 아무리 외적 조건을 동일하게 해도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 교수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도 학생은 그것을 교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에 따라 변형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수업을 야구에서의 타격행위에 비유한다면, 타자가 동일한 자세로 배팅을 해도 날아오는 공의 구질에 따라 전혀 다른 타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자가 공의 구질을 고려하면서 의도한 방향으로 타구를 날려 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수는 학생의 마음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것을 의도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이 반복과 재생이 어려운 일회적인 것이다. 어쨌건 수업의 성과 - 즉, 학습이라는 학생 마음속의 변화 - 는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교수의 의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의 주도적인 호응이다. 이와 같은 수업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생각해볼 때, 받아들이는 학생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교과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에만 급급한 수



업은 좋은 수업이 될 수가 없다.

'30대 교수는 자기가 배운 것을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고, 4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을 가르치려고 하며, 50대 교수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이 들수록 예리함이 사라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강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통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교육학에서 한때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We teach children, not subject-matter!)'는 구호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가르친다'는 동사가 '학생에게'와 '교육내용을'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동시에 갖는 타동사임을 상기한다면 이 구호는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육에서 학습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점에서 일면의 진리를 드러내어 보인다. '학습은 학습자의 몫이다. 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을 뿐이지, 학습이라는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수업에 좀 더 여유롭게 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근래에 와서 교육학에서는 '구성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은 학습자의 마음 바깥에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고 구성한 지식이 아니면 참된 지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직접적 체험과 능동적 학습이 중요하며, 소위 객관적인 정답을 가르쳐주는 일은 교육적으로 무익한 것이다. 학습된 결과로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고기를 주면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살 수 있다'는 비유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전달식 수업보다는 더욱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지원하는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깨달음을 너무 뒤늦게 얻었다는 점이다.



교수지원 및 교육

교수법 관련 교육

교수법 특강 27차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교수매체 개발 연수 (기초 및 초급)

- 일 시 : 2007년 5월 18일 (금) 14:00~16:30
- 장 소 : 북악관 206호 전산실
- 강 사 : 박현아 (경북대학 외래교수)
- 내 용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교수매체 개발 연수 (기초 및 초급)
파워포인트의 기초를 1명의 주강사와 여러 명의 보조강사가 Step by Step으로 진행하였다. 초보자들도 쉽게 파워포인트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업자료를 제작해 볼 수 있었다.



교수법 특강 29차 - 수업전달력 향상을 위한 발성법

- 일 시 : 2007년 6월 13일 (수) 10:00~12:00
- 장 소 : 본부관 401호 세미나실
- 강 사 : 서동일 (서동일 발성치료 연구원 원장)
- 내 용 : 발성관련 이론과 실습, 음성생리, 음성평가, 발성연습, 음성유지방법
이번 특강은 수업전달에 있어 중요한 억양, 음색, 강세 등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다. 특히 잘못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하여 목이 쉽게 쉬거나 피로를 느끼셨던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셨다.



사이버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교수법 특강 28차 - 사이버강좌 저작도구 교육

- 일시 : 2007년 6월 8일 (금) 14:00~16:30
- 장소 : 북악관 206호 전산실
- 강사 : 박미숙 (자이닉스 마케팅팀 고객지원실)
- 내용 : eStream Presto v 4.0 사용 및 활용법

본 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매체 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강좌 저작도구인 eStream Presto v 4.0 사용 및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 2학기부터 eStream Presto v 4.0을 사용함에 따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매체 제작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서비스

강의 비디오 촬영 서비스

- 과목 및 교수 : 사회조사분석실습 - 이명진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2일 (월) 15:00~16:15 북악관 204호
- 과목 및 교수 : 북악정치포럼 - 김상희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5일 (목)~2007년 6월 15일 (목) 18:45~20:15 본부관 401호
- 과목 및 교수 : 한국정치와 권력 - 김하영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5일 (목)~2007년 6월 15일 (목) 18:45~20:15 본부관 306호
- 과목 및 교수 : 미디어연구방법론 - 김도연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23일 (수) 09:00~10:30 북악관 705호
- 과목 및 교수 : 시스템분석 및 설계 - 김승렬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7일 (목) 10:00~12:00 경상관 507호



학습지원 및 교육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법 특강 9차 - 효과적인 읽기 및 필기 전략

- 일시 : 2007년 3월 16일 (금) 15:00~18:00
- 장소 : 국제교육관 B동 103호
- 강사 : 김미라 (임상심리사, 한국 심리자문연구소 연구원)
- 내용 : 효과적인 읽기 및 필기 전략

이번 특강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읽기의 목적, 읽기를 위한 준비 활동과 핵심 찾기, SQ4R을 포함하는 읽기 및 필기 전략 훈련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학습법 특강 10차 - 불안조절 및 주의 집중력 향상 전략

- 일 시 : 2007년 4월 13일 (금) 13:00~15:3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강 사 : 김옥희 (본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내 용 : 불안 조절 및 주의 집중력 향상 전략
이번 특강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상훈련과 명상, 긴장이완 훈련, 주의 집중력 키우기 훈련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습법 특강 11차 - 지킬박사 & 하이드와 함께 하는 영어학습법

- 일 시 : 2007년 5월 11일 (금) 13:00~15:3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강 사 : 장혜진 (본교 교양과정부 외래교수)
- 내 용 : 지킬박사 & 하이드와 함께 하는 영어학습법
이번 특강은 Speaking, Writing, Vocabulary 그리고 Grammar를 좀 더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킬박사와 하이드"라는 영화를 소재로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학습법 특강 12차 - 기억력 향상 및 조직화 전략

- 일 시 : 2007년 6월 1일 (금) 13:00~15:3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강 사 : 도영미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 내 용 : 기억력 향상 및 조직화 전략
이번 특강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 SQ4R, Tree Diagram, Mind Map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억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래픽 조직화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학습클리닉 워크숍

- 일 시 : 2007년 5월 9일 (수)~5월 30일 (수) 19:00~20:3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1-1호
- 강 사 : 김옥희 (본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도영미 (본 센터 연구원)
- 학습클리닉 워크숍 회기별 주제 및 강사
 - 1회기 - 불안과 시험불안
2007년 5월 9일 (수) 19:00~20:30 (김옥희, 도영미)
 - 2회기 - 시험불안과 사고유형 대처방법
2007년 5월 16일 (수) 19:00~20:30 (김옥희, 도영미)
 - 3회기 - 불안 조절을 위한 긴장·이완 훈련
2007년 5월 23일 (수) 19:00~20:30 (김옥희, 도영미)
 - 4회기 - 만다라 작업과 집중력 강화 스트레칭
2007년 5월 30일 (수) 19:00~20:30 (김옥희, 도영미)



북악캠퍼스 5기 스터디 그룹

2007-1학기 제 5기 스터디 그룹 활동 (3월 26일 (월)~6월 8일 (금) 총 11주)

- 모집 : 2월 26일 (월)~3월 16일 (금)
- 오리엔테이션 : 3월 23일 (금) 18~19시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중간모임 : 4월 13일 (금) 18~19시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수상 그룹
 - *합리적 탐구상
장학생 - 김홍병, 곽상미, 박민선, 박슬기, 문강희, 안영규
 - *주도적 학습상
세계의 눈 - 오이슬, 양민아, 심아름, 김인섭, 김상형, 김혜림

- Dream Girls - 김수연, 김지은, 최인성, 김진, 김영호
- 나르샤 - 황영단, 김민수, 최원숙, 손예리, 이관형, 박요셉
- 우리 열심히하조 - 전수민, 김두영, 유수진, 장서령
- 함께없어 - 우승완, 김향, 성예린, 진선희
- *성실한 진보상
식스센스 - 이다희, 변재희, 김진희, 김지희, 김민우, 박재홍
- 유레카 - 김예슬, 김일호, 김통일, 안지은, 오은혜
- 3Queen - 김진희, 이다희, 변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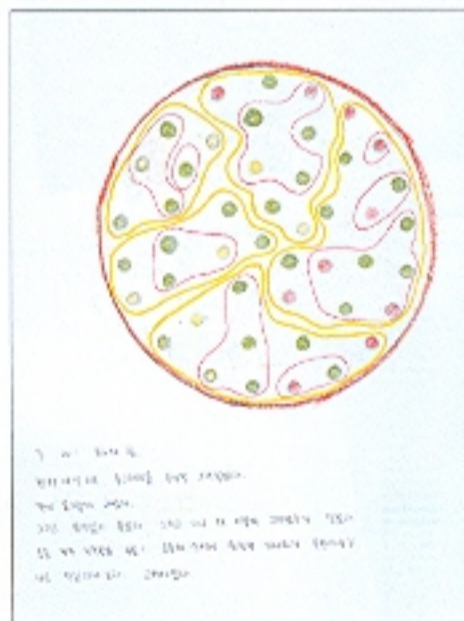
우리는 5기 스터디 그룹입니다!!



시험불안 극복하기 - 만다라 작업

박예슬 / 식품영양학과 3학년

학생들이 불안조절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작업한 만다라 그림



'시험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같이 할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극복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특히 고3때는 모의고사 볼 때, 심지어는 쪽지시험을 볼 때마저도 시험불안을 경험해야 했고, 공식적인 시험은 말 할 것도 없이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병인가 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내 증상을 말하니 '대장성 과민증후군'이라고 했다. 이 병은 특별히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경과민, 긴장 등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복부 팽만, 설사,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병이긴 해서 약 처방은 해주는데 완전 치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그 뒤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이려니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러던 중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마련한 '시험불안 극복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광명을 발견한듯했다. 완전 극복은 아니더라도 증상의 완화나 무슨 해결방법을 알려준다는 생각은 은근한 기대도 됐다. 드디어 그날이 됐고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 시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법은 생각보다 다양했고 하나하나를 체험해보았다.

"명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을 고3때 했던 것 같다. 내가 한 명상은 '하늘의 달보기'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매개체가 없는 나로서는 하늘에 매일 보이는 달이 내 믿음과 염원을 이뤄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서울의 하늘은 별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달만이 넓은 하늘에 환하게 보인다. 시험을 보기 전날 밤, 그것을 보면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었고 시험 바로 전에 그 상황을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집중을 했다. 이것이 시험불안 치료법인지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왜 그걸 계속 안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극복법은 그림을 이용한 심리 치료요법인 '만다라 작업'이다. 그림 그리기는 잘 좋아하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았다. 사실 만다라 그림을 처음 접해본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유치원을 다니는 사촌동생이 이상한 그림에 색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같이 도와 준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만다라 그림이었다. 만다라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격형성과 정서 안정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널리 활용되는 교육방법인 것 같았다. 나는 이번 과제도 제출하고 내 시험불안을 극복해볼 요량으로 만다라 요법을 선택하여 시행해보았다.

먼저 시험기간에 만다라를 그리면서 내 심리변화를 관찰해보았다. 이번 중간고사는 시험기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일에 한 과목으로 3주정도가 계속되었는데 그만큼 시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기간이 길고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은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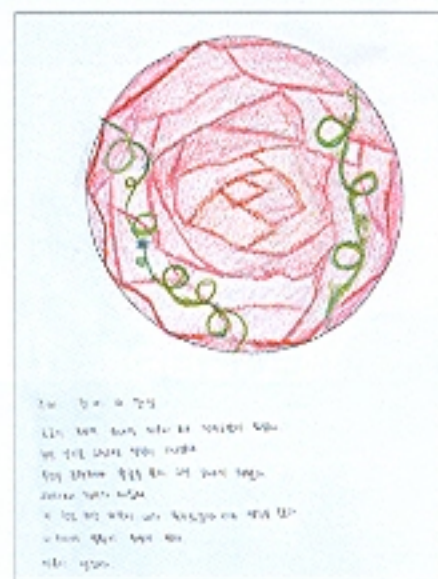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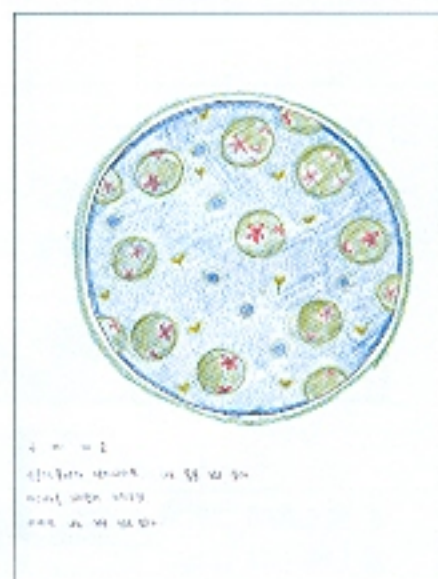
꽃뿐만 아니라 온갖 꽃들, 행사들로 공부를 할 맘을 잡기가 힘들다. 만나라 요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였다.

나는 시험공부를 하는 중간이나 시작 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잡생각이 나고 마음이 뒤숭숭할 때 마다 만다라를 이면지 귀퉁이에 그렸다. 그 그림들은 더 크고 세미하게 그려서 원본과 함께 뒤쪽에 첨부해 놓았다.

만나라의 효과는 확실하게 바로 나타났다. 집중력이 짧고 잡생각을 많이 하는 나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요법이었다. 원을 그리고 구상을 하고 직선과 곡선만으로 원안을 채워나가면서 오로지 내 생각은 원에 완성될 만다라만이 들어가 있었다. 누가 특별히 그리는 방식을 알려주거나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패턴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 빨려들어 가듯이 주위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그려진 만다라를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조그맣게 그려서 시간은 한 1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효과를 보면 만다라를 그리기 전에는 집중력이 50분정도였던 것에 비해 1시간 반으로 거의 2배가 늘었다. 그 순간 나는 이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험 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만다라를 하나씩 그려나갔다.

만다라 요법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시험불안 극복"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많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시험불안의 시작은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안했을 경우나,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온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시험 준비를 자신있게 한다면 시험불안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집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다라 요법은 시험불안 극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만다라 그리기에 나를 취미를 붙이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해서 집중력 강화뿐만 아니라 "시험불안" 까지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다른 방식을 한번 씩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시험불안 극복'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할 때 사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어 내 능력을 100%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단축키



박연아
경북대학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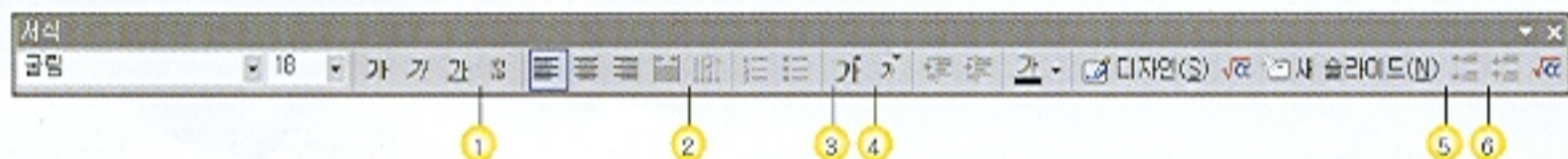
Tip I 화면 구성내에서 활용하기

1) 작업창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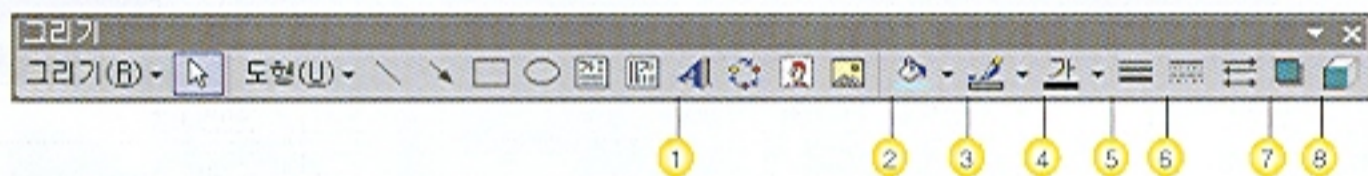
- 작업창을 띄워놓으면 슬라이드 레이아웃, 디자인 서식화일, 클립아트, 화면전환 등을 보다 손쉽게 찾아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 작업창이 사라졌을 때는 '보기-작업창'에 체크를 하거나 메뉴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작업창을 선택해 준다.

2) 아이콘 활용하기

- 단축키만큼 활용하기 좋은 아이콘들이 많이 있다. 서식 도구모음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거나 도형 꾸미기를 좀 더 쉽게 해주는 파워포인트만의 아이콘은 아래와 같다.



- ① 텍스트에 그림자 효과 ② 텍스트 방향 변경 ③ 글꼴 크기 크게 ④ 글꼴 크기 작게
- ⑤ 단락간격 넓게 ⑥ 단락간격 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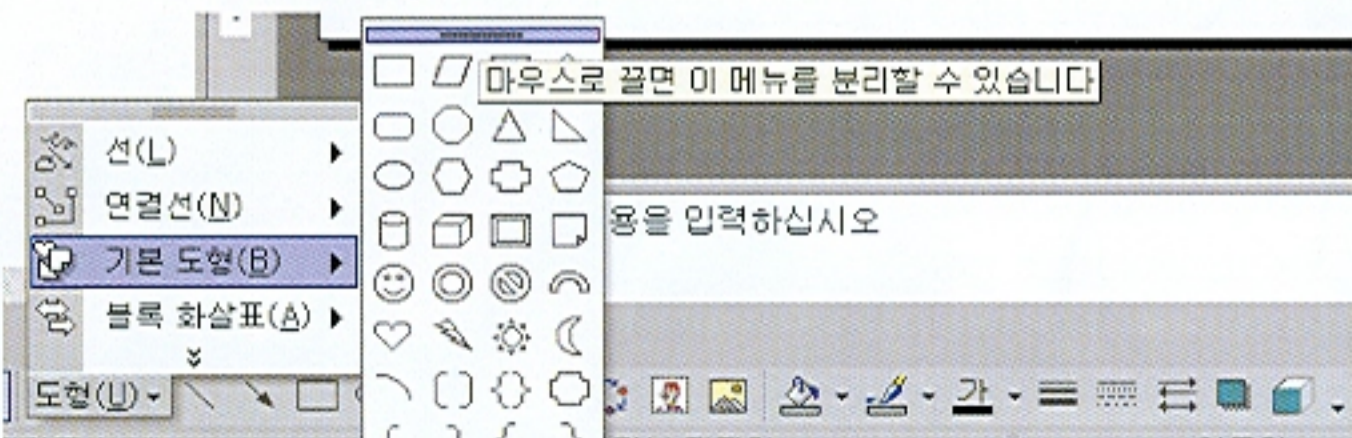


- ① 워드아트 삽입 ② 도형 색 채우기 ③ 선의 색 선택 ④ 글꼴 색 선택
- ⑤ 선의 굵기 ⑥ 선의 스타일 ⑦ 도형의 그림자 스타일 ⑧ 개체에 3차원 효과

Tip II 도형그리기

1) 도형 도구모음 분리하기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형을 이용하여 꾸미는 것이다. 도형을 그리다보면 늘 그리기 도구모음에서 도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수고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도형-기본도형을 마우스로 갔다 대면 맨 위에 세 줄로 된 선이 나타난다.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 사용하기 편한 화면 창에 드래그하면 바로 분리되어 사용할 수 있다. 작업을 다 마치면 달기를 클릭하면 된다.



2) 기능키(Ctrl, Shift) 활용하여 도형 그리기 및 복사하기

<p>Ctrl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기능 : Ctrl + C, Ctrl + V Ctrl + 드래그 Ctrl + D (복제하기) - 미세한 개체이동 : Ctrl + 방향기 - 대칭적 도형 그리기 및 조절하기 : Ctrl + 도형그리기 - 개체 하단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 Ctrl + 회전 핸들
<p>Shift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 좌우 상하로 움직이기 : Shift + 드래그 - 개체 15도씩 움직이기 : Shift + 회전 핸들 - 직선 15도씩 그리기 : Shift + 직선 선택 후 그리기 - 장방형 비율 유지하며 개체크기 그리기 및 조정하기 - 여러 가지 도형 선택하기 : Shift + 차례로 도형 클릭
<p>Ctrl + Shif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각으로 복사하기 : Ctrl + Shift + 드래그 - 중앙하단을 중심으로 15도씩 회전하기 - 시작점을 중심으로 도형 장방형으로 그리기

Tip III 단축키 모음

새슬라이드	Ctrl + N
슬라이드 넘기기	Ctrl + Enter...
슬라이드 디자인	Ctrl + M
슬라이드 소보기	F5
슬라이드 번호로 이동	슬라이드번호 + Enter...
숨겨진 포인터 다시표시	Ctrl + P
포인터와 탐색단추를 즉시 숨김	Ctrl + H

오른쪽 맞춤	Ctrl + R
왼쪽 맞춤	Ctrl + L
가운데 맞춤	Ctrl + E
개체 그룹 묶기	Ctrl + Shift + G
개체 그룹 해제	Ctrl + Shift + H
글꼴 확대	Ctrl + Shift + >
글꼴 축소	Ctrl + Shif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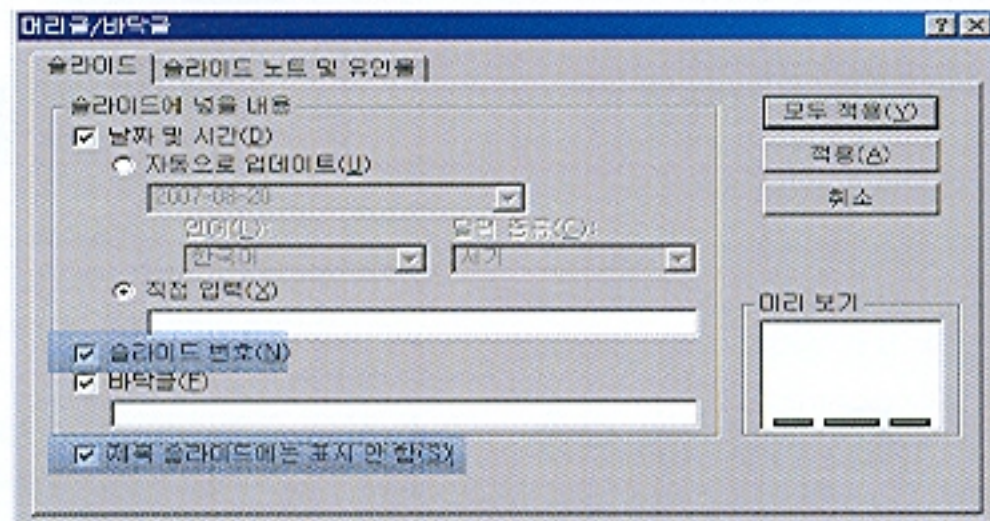
Tip IV 슬라이드 페이지 설정

슬라이드에 번호를 붙일 때 '삽입-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여 머리글/바닥글 창을 띄우면

슬라이드 번호(N)에 체크를 한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S)에 체크를 하면 맨 처음의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삽입되지 않고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페이지 번호가 뜬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페이지 번호 2번이 부여된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번호 1을 부여하고 싶다면 '편집-페이지설정'을 클릭하여 페이지 설정 창을 띄운다. 슬라이드 시작번호를 0으로 수정하고 닫는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 1번이 나타난다.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연구 및 개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센터 대외 협력체제 구축
강좌 및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교육매체 개발
교과목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교수지원 및 교육

일반 교수법 및 매체활용 교육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학과(부)별 세미나/워크숍 지원
신임교수를 위한 교수법 자료 제작 및 특강
교수매체 활용 교육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교수매체 제작 지원
사이버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 학습지원 및 교육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Study Group 활동 지원
학습검사 및 상담
학습클리닉 워크숍

● 정보제공

교수매체 활용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교수-학습 가이드북, 영어학습법, 대학생활 안내서 발간
학습노트 제작 및 배포
뉴스레터 및 안내 브로슈어 발간
교수법 관련 자료 대여
우수 강의 사례 영상 자료 대여

● 가상대학 운영

사이버강좌 개발 및 평가
사이버강좌 운영 및 관리

본 센터의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

Tel: 910-4448, Fax: 910-4249, E-mail: kctl@kookmin.ac.kr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